

# 오늘날의 언어 현실과 표준 화법의 중요성

강신항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 1.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말을 많이 하면서 살게 되었다. 여러 가지 모임도 많고 선거도 많아서 우리는 좋거나 싫거나 여러 모임에서 축사나 발언도 해야 되고 입후보자들이 토해내는 선거 연설도 귀 아프게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또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언어도 거의 24시간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다.

또 한편으로 오늘날 세계 안의 40여 개 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고, 중국만 하더라도 35개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위상이 세계 속에서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한국어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모로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어 첫걸음을 뛰어 넘어 한국어 회화, 한국어 작문, 중급 한국어에다가 고급 한국어 학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한국 현대 문학 명작 選讀, 한국문학사, 중세한국어 강독, 한국어문법론 연구까지 학습하게 되었다.

한국어 교육과 학습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격상되고 나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여러 종류의 교재이며, 남들에게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표준 한국어’다. 이것은 직접 외국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대중의 언어생활은 어떠한가? 소위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조차 전 국민을 상대로 사투리와 속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며, 교사까지도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를 구별하지 못하고, 말끝마다 “‘좋다’고 말했다”라고 할 것을 “‘좋다라고’, ‘좋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며, ‘생각이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리하여 우리는 제대로 격식에 맞고 품위가 있는 연설이나 담화를 듣기 힘들게 된 지도 이미 오래다.

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음운, 어휘, 문법 면에서 끊임없이 변한다. 더군다나 사회적인 평등이 곧 언어적인 격식 파괴인 것으로 착각하고 대중의 말을 바탕으로 한 언문일치를 귀히 여기는 풍조 아래에서는 문어체나 격식체보다는 구어체가 더 존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신문 표제어에 ‘깃털’, ‘왕따’, ‘뺨다 방’ 등이 버젓이 자리를 잡게까지 되었고 점잖은 분의 글에서조차 ‘알랑방구’, ‘뺨대’ 등이 쓰이고 있다. 그전에는 이러한 말을 ‘시정잡배’가 쓰는 말이라고 했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언어생활을 가지고 ‘표준 한국어’라고 국내외로 내세울 수는 없다.

따라서 표준 화법을 말하기 전에 오늘날의 언어생활을 음운·어휘·어법 면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아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초부분이 확립되어야 표준 화법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2. 음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쓰이고 있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면, 부정확한 발음이 너무나도 많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1) ㅕ/e/와 ㅕ/ɛ/의 혼동으로 인한 /E/ 모음화 경향

중부 지역어의 모음체계 가운데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변화의 하나가, 에/e/ 모음과 ㅕ/ɛ/ 모음의 혼동이다. 50년대 후반기부터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 이러한 혼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혼동이 보편화된 느낌이 있다. /e/와 /ɛ/의 혼동은 중간 모음인 /E/음으로 변화해 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고, /ㅅ·ㅆ/ 자음과 결합할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b>보기</b>	담배	담배	작아진대요	작아진대요
	제적(在籍)	제적	처리하지 않은 채	처리하지 않은 채
	새벽	세벽	두부찌개	두부찌개
	게[蟹]	개	주례(主禮, 주례)	주례를 서 주세요.
	얘기(이야기)	예기	세 번째	새 번째

(2) ㅕ/y/와 ㅕ/ø/의 소실 경향

중부 지역어를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설모음 ㅕ/i/ ㅕ/y/ ㅕ/e/ ㅕ/ø/, ㅕ/ɛ/, 중설 모음 ㅕ/i/, ㅕ/ə/ (음성상으로는 ə: 와 ɔ), 후설모음 ㅕ/u/, ㅕ/o/ 등 10개 모음을 가지고 언어생활을 해 왔다. 오늘날 이 가운데에서 원순 전설모음인 ㅕ/y/와 ㅕ/ø/가 차츰 소실되어 가는 과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b>보기</b>	뒤[ty]	→	디[ti]	쥬[tfy]	→	쥬[tswi], 지
	윗동네	→	웃동네	웃어른	→	윗어른
	귀[ky]여운	→	구여운	위[y]대(偉大)	→	위[wi]데
	외국(外國)	→	웨국			

(3) 이중모음의 단순모음화 경향 - 반모음 /j/와 /w/의 탈락

이 경향은 한자음의 경우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b>보기</b>	시계(時計)/si-kje/	→	시계/si-ke/
	폐기(廢棄)/pʰje-ki/	→	폐기/pʰe-ki/

8 새국어생활 제13권 제1호(2003년 봄)

혜화(惠化)/hje-hwa/	→	혜화/he-hwa/
좌석(坐席)/tʃwa-sək/	→	자석/tʃa-sək/
관심(關心)/kwan-sim/	→	간심/kan-sim
뭐야/mwə-ja/ 당신이	→	머야/mə-ja/ 당신이

(4) -i/ij/ 모음의 동요

하향이중모음으로서는 유일하게 쓰이고 있는 의/ij/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단모음으로 동요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b>보기</b> 의지(意志)	→	으지
야당의 공세	→	야당으 공세, 야당에 공세
희박(稀薄)	→	히박
의사(醫師)	→	이사, 으사
인생의 목적	→	인생에 목적
값의 폭등	→	갑세 → 갑세 폭등
삶의 의의	→	삶에 이이, 삶에 으이
강의	→	강이

(5) 장모음과 단모음의 혼동

이전에는 語頭 音節에서 모음의 장단이 변별적 자질 구실을 했는데 근자에는 어두 음절에서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화자가 크게 늘어나, 모음의 장단에 의한 의미의 분화를 식별하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원래 어두 음절에서 길게 발음되던 모음도 合成語 非語頭 위치에 놓이게 되었을 때만, 그 음장을 잃었다.

<b>보기</b> 감(직물 재료)	감:(柿)	
눈(眼)	눈:(雪)	칫눈
벌(罰)	벌:(蜂)	
발(足)	발:(簾)	

말(馬)	말:(言)	참말
	많:다(多)	수많이

(6) 된소리화 경향

어두나 어중을 막론하고 까닭없이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거의 굳어져 가고 있다. 특히 ㄷ, ㅈ 자음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b>보기</b> 과(科, 課)	까	간단(簡單)	간판
고가도로	고까도로	관건(關鍵)	관건
던지다	뎌지다	교과(教科)	교과, 교까
다른 사람	따른 사람	효과(效果)	효과, 효까
동그라미	똥그라미	김밥	김빡
불법(不法)	블빡	방법(方法)	방빡
문법(文法)	문빡		
세련(洗鍊)	썰련		
소주(燒酒)	쏘주, 썬주		
자식(子息)	짜식	자르다	짜르다
기본적(基本的)	기본쩍		
조금	쪼금	작아서	작아서

(7) 명사말자음(종성) 체계의 간소화 경향

ㅅ[ㄷ] → ㅅ[ㅅ] 뜻있는[뜯읷는] → [뜨신는]

ㅈ → ㅈ 빗[빔, 빗] → [빔, 빗]

주격형 : 빗이[비지] → [비시]

대격형 : 빗을[비즐] → [비슬]

젓[젇, 젓] → [젇, 젓]

ㅈ → ㅈ 꽃[꼰, 꽃] → [꼰, 꽃]

주격형 : 꽃이[꼬치] → [꼬시]

10 새국어생활 제13권 제1호(2003년 봄)

- 대격형 : 꽃을[꼬츨] → [꼬슬]
- 빛[빔, 빗] → [빔, 빗]      빛을[비츨] → [비슬]
- ㅌ→ㅍ 발[받, 밧, 발] → [받, 밧]      곁[곁] → [곶]
- 주격형 : 발이[바치] → [바시]      끝이[꼬티] → [꼬시]
- 대격형 : 발에[바테] → [바세]      곁을[겨틀] → [겨슬]
- 살살이[산싸치] → [산사시]
- 날날이[난나치] → [난나시]
- ㄱ→ㄴ 녀[녀, 녀] → [녀]      부엌[부억, 부억] → [부억]
- ㅍ→ㅂ 숲[슉, 슉] → [슉]      무릎[무릅, 무릎] → [무릅]
- ㄱ→ㄷ 샓[삭, 샓] → [삭, 짹]      뭉[목, 뭉] → [목]
- ㄹ→ㄱ 닭[닥, 닭] → [닥]      흙[흑, 흙] → [흑]
- 래→ㄷ 넓게[넙게] → [넙게]      짹고[짹꼬] → [짹꼬]
- 넙지[넙찌] → [넙찌]
- ㄹ→ㄹ 밭다[박따] → [밭따]      맑다[막따] → [말따]
- (ㄱ→ㄹ) 굵직한[국찌칸] → [굴찌칸]
- ㅁ→ㄷ 값[갑, 값] → [갑]      몸값읷[몸갑읷] → [몸까븐]
- 참고 낮(晝) : 낮에 → 나제, 옆 : 옆에 → 여페

(8) -ㅅ → -ㅆ

보기 또렷이 → 또려치      씻어 → 씨쳐      깨끗이 → 깨끄치

(9) 음절 경계의 변동

우리말에서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하나가 놓이게 되면, 음절 경계가 그 자음 앞에 오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모음 사이의 자음이 ‘ㄹ’일 때에는 음절 경계가 그 뒤에 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 ‘ㄹ’음을 첨가하기도 한다.

보기 발음    바 | ㄹ - ㅁ → 바 ㄹ | - ㅁ → 바 ㄹ | ㄹ - ㅁ

절약 저 | 리 ㅏ ㄱ → 저 리 | 리 ㅏ ㄱ  
 촬영 최 | 리 ㅋ ㅇ → 최 리 | 리 ㅋ ㅇ  
 탈영 타 | 리 ㅋ ㅇ → 타 리 | 리 ㅋ ㅇ

### 3. 어휘

오늘날 우리나라 대중의 언어생활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어휘의 예를 몇 개만 들어보겠다.

#### (1) 잘 못 쓰이고 있는 어휘

정(기본)	오용(대중어)
<가리키다와 가르치다의 혼동>	
학생을 가르치다	학생을 가리키다
<외국에 가다와 들어가다의 혼동>	
외국에 가다	외국(미국 중국 등)에 들어가다
<늘이다와 늘리다>	
공급량을 늘이다	늘리다
<드린다는 남용>	
축하합니다.	축하의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구요
감사한다.	감사를 드린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드린다.
<두껍다와 두텁다의 구별>	
우정이 두텁다.	우정이 두껍다.
<메우다와 메꾸다>	
자리를 메우다.	자리를 메꾸다
<벌이다와 벌리다의 혼용>	
잔치를 벌이다	벌리다.

12 새국어생활 제13권 제1호(2003년 봄)

입을 벌리다	입을 벌이다.
<바람과 바람의 오용>	
희망과 바람	희망과 바람
<서수사의 오용>	
쉰네살	오십네살
사십육표	사십여섯표
<삼가다의 오용>	
술을 삼가다	술을 삼가하다
<‘않은’(형용사)과 ‘않는’(동사)의 혼동>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	별로 다르지 않는 사람
먹지 않는 밥을 버려라	먹지 않은 밥을 버려라
<이르다와 빠르다의 혼동>	
내일 일찍 와	내일 빨리 와
이 문제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 문제 논의는 아직 빠르다.	
<작다와 적다의 혼용>	
쓸 돈이 너무 적어요	쓸 돈이 너무 작아요.
<-적의 과용>	
마음으로	마음적으로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줍다와 줏었다의 혼용>	
돈을 주웠다(줍다).	돈을 줏었다.
<기타 잘못 쓰이는 예>	
총각무	알타리무
풍비박산(風飛雹散)	풍지박산
혈혈단신(孑孑單身)	홀홀단신

(2) 호칭의 변화

**보기**

아버지(父) → 아버님(父, 丈人, 친구 아버지, 남자 老人, 남자손님)  
 어머니(母) → 어머님(母, 丈母, 친구 어머니, 여자 老人, 여자손님)  
 아버지, 어머니 → 아빠(父, 夫), 엄마(母, 아내)  
 형, 오빠(兄) → 형, 오빠(夫)

(3) 이상한 부사들의 남용

근래에는 다음과 같은 이상한 부사들이 널리 쓰이고 있다.

**보기** ‘특히나’, ‘딱히’, ‘엄청’, ‘꼭히’

## 4. 어법

(1) 중복 피동형의 남용

원래 접미사 ‘-이-, -히-, -리-, -기-’ 등과 ‘-어지다, -되다, -당하다, -받다’ 등을 이용하여 피동의 뜻을 나타냈는데, 요즘에는 중복 피동형이 남용되고 있다.

**보기**

정	오
개혁된다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게 된다
요구된다	요구되어진다
발견된다	발견되어진다
생각된다	생각이 되어진다
잘렸다	잘리어졌다

(2) 경어법의 변화

종래 우리 전통문법에서는, 경어법을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로 구분하고, 하게체와 하오체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반말

14 새국어생활 제13권 제1호(2003년 봄)

체를 인정했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에 이르러는, 반말체가 우세해지고, 4단계의 경어법 체계가, 2단계의 경어법 체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구어체의 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딱딱한 격식에 얽매인 표현보다는, 좀 더 친숙한 관계를 보여 주는 구어체 표현이 우세해진 결과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말을 해야 할 자리에서도 “와 주셔서 고맙구요” “좋더라구요” “여기서 보니 매우 좋네요(존네요)” “맞아, 맞고요, 맞아요.” 등으로 말을 하고 있다. 반말체는 ‘해/해요’체로 표시된다.

**[보기]** 동사 ‘가다’의 명령법의 경우

	전통문법	현대문법
해라체	가라	가
하계체	가게	
하오체	가오	가요
합쇼체	가십시오	

실지 언어생활에 있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체계 가운데 어느 한 체계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두 체계를 혼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구어체로 작품 쓰기를 좋아하는 일부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해/해요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기]** 중고차 사면 되잖아.

이삼 일 후에 시험 보게 돼.

내일 시험 치는 날야.

실토해 봐.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괜히 핏대 내고 그래요?

금지 좀 가져요.

존경하는 뜻이나 정중한 태도를 나타내는 ‘-님, -께서, -께’의 사용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보기**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선생님께서 아버님께

→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선생님이 아버님께

또 어휘를 구별해서 경어법 즉 상대편을 대우하는 표현에도 변화가 생겨서, ‘말씀’과 ‘말’, ‘여쭙어보다’와 ‘물어보다’, ‘드시다, 잡수시다’와 ‘먹다’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8·15 광복 이후 평등 사상이 널리 퍼진 탓인지, 또는 자아의식이 강해진 탓인지, 제1인칭 비칭인 ‘저’가 점점 안 쓰이고 ‘저’ 대신에 ‘나’, ‘제가’ 대신에 ‘내가’ 하면서 화자 자신을 뚜렷하게 내세우는 언어생활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른바 壓尊法도 거의 안 쓰게 되었다. 집안 어른 앞에서 자기 남편을 가리키는 말로 ‘아비가 그랬습니다.’라고 하던 것을 지금은 ‘아빠(에기 아빠)가 그랬어요.’라고 하는 경향이 많다.

### (3) 수사의 변화

서수사 가운데 ‘세’와 ‘네’가 ‘서’와 ‘석’, ‘넉’으로 변하는 것을 모르는 ‘세’와 ‘네’를 널리 쓰고 있다.

**보기** 서 말 → 세 말    석 잔 → 세 잔    넉 잔 → 네 잔

### (4) -님의 일반화

원래 호칭이나 직위 이름 아래에 첨가하여 아버님, 고모님, 선생님, 사장님, 장교님과 같이 존경을 나타내던 -님이 고유명사 아래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

보기 홍길동님, 박문수님, 김선달님

(5) 활용 방식의 변화

동사와 형용사의 어미 변화의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식의 활용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간단하게 공식화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 동사 활용형을 닮은 형용사 활용형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로 동사에는 청유형과 명령형이 있으나 형용사에는 그것이 없다고 지적해 왔다.

- ① 어서 밥을 먹자./먹어라.
- ② 내일은 학교에 가자./가거라.
- ③ 우리 함께 놀자./철수와 함께 놀아라.

위의 예는 동사의 청유형과 명령형이다. 그러나 형용사 중 일부는 청유형과 명령형이 변화를 해서 각급 학교와 각 학교에서 내걸고 있는 교훈과 급훈에서 ‘참되자, 착하자, 아름답자’나 ‘참되어라, 착하여라, 아름다워라’ 등과 같은 형용사의 청유형과 명령형이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다.

- ① 깨끗하자.(깨끗하게 하자.)
- ② 깨끗하여라.(깨끗하게 하여라.)

2) 돕자 → 도우자 식 활용

근래에는 ①과 같이 ‘돕자’가 되어야 할 경우에 /ㅅ/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우/가 나타나기도 하며 ②~④처럼 어간모음과 /ㅅ/ 사이에 /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 ① 서로 도우자.(도우니, 도우면)
- ② 서로 도웁기로 약속하였다.



<규범 → 관용>

- ①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날다)  
→ 비행기가 날은다. 하늘을 날으는 새.
- ② 어서 진지를 드십시오.(들다)  
→ 어서 음식을 들으십시오.
- ③ 누이가 무를 썰면 고르게 썬다.(썰다)  
→ 그렇게 썰으면 안됩니다.
- ④ 당신은 여기서 사오.(살다)  
→ 요새는 어디에 살으십니까?
- ⑤ 짐을 푸십시오.  
→ 짐을 풀으십시오.
- ⑥ 이 일은 매우 힘듭니다.  
→ 이 일은 매우 힘들습니다.
- ⑦ 빙니다, 눅니다, 늣니다.  
→ 빌읍니다, 늘읍니다, 늣읍니다

4) ‘-거라’ 명령형의 일반화

동사의 명령형 어미로 쓰이는 /-아라~-어라 $\alpha$ -거라 $\alpha$ -너라/ 가운데 ‘-거라’는 ‘가다’, ‘나다’ ‘자다’ 등의 명령형에 나타난다.

- ① 어서 가거라.(나가거라.)
- ② 어서 이 지역을 벗어나거라.
- ③ 오늘은 일찍 자거라.

그런데 최근 이 ‘-거라’가 규칙활용동사와 불규칙활용동사의 명령형에 널리 쓰이고 있다.

- ① 어서 너 먼저 먹거라.(←먹어라)
- ② 이 손잡이를 잡거라.(←잡아라)
- ③ 너희들은 여기 있거라.(←있어라)

- ④ 모두 내 말을 듣거라.(←들어라)
- ⑤ 좀 더 높이 날거라.(←날아라)

5) ‘-ㄴ/은 → -았/었던’ 사용 확대

동사의 관형형(과거)를 만들던 ‘/ㄴ/은’ 형이 형용사의 과거형(과거) ‘-았/었던’으로 확대되고 있다.

- ① 가- → 가ㄴ(간) 집 → 가았던(갔던) 집
- ② 본 책 → 보았던(봤던) 책
- ③ 먹- → 먹은 밥 → 먹었던 밥
- ④ 부치- → 부친 책 → 부쳤는 책
- ⑤ 시키- → 시킨 일 → 시켰는 일

6) ‘-고 있다’의 사용 확대

동사에만 붙던 ‘-고 있다’가 형용사에도 붙고 있다. 동사와

**보기** 형용사 활용이 같아지는 경향이 있다.

날씨가 맑고 있습니다.

많이 아프고 있는 사람들

힘들고 있습니다.

7) -르-의 참가

근래에는 ‘-르’ 말음절 어간 동사의 활용처럼 -르-를 첨가하는 활용이 많아졌다. 이것은 ‘마르다 → 마 르+르+어 → 말러’와 같은 활용과는 다른 모습이다.

- ① 물이 철철 넘쳐흐른다./넘쳐흘른다.

(참고. 흐르- / 흐르고, 흘러, 흘렀다.)

- ②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른다./졸른다.

(참고. 조르- / 조르고, 졸라, 졸랐다.)

- ③ 밥을 먹으려고/먹을려고      함께 울려고 / 울을려고

- ④ 일을 하려고/할려고            꿔뚫어야 / 꿔뚫러야
- ⑤ 서울에 가려고/갈려고

8) 불완전 동사 ‘달라, 다오’의 변화

나즘 도와 달라, 다오

→ 나즘 도와 주라, 그것 하나만 나즘 주라.

9) 이상한 미래형 사용

좋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석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출석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내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산역입니다.

→ 다음은 용산역이 되겠습니다.

(6) 요건 충족 없이 쓰이는 말

**[보기]** ‘나름’은 아래와 같이 앞에 명사나 어미 ‘-기’, ‘-을’ 등이 쓰인다.

책도 책 나름이지 그 따위 책이 무슨 도움이 되겠니?

합격하고 못하고는 내가 열심히 하기 나름이다.

나는 내 나름대로 일을 하겠다.

그런데 다음의 예와 같이 ‘나름’ 앞에 아무 말도 없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

**[보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 제 나름으로는

(7) 인용 형식의 변화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쓰는 말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 |                |                  |
|----------------|------------------|
| [보기] 먹었다고 말했다. | → 먹었다고 말했다.      |
| 살고 있다는 증거      | → 살고 있다라는 증거     |
| 좋다고 했다.        | → 좋다고 했다.        |
| 넣어놓는다는 것이      | → 넣어 놓는다는 것이     |
| 돈을 떼어 먹었다는 것이  | → 돈을 떼어 먹었다라는 것이 |

(8) 불필요한 조사의 첨가

- [보기] 그래야만 합니다 → 그래야만이 좋습니다

(9) ‘-에’와 ‘-에게’의 혼동

- [보기] 그 사람에게 맞는 옷 → 그 사람에 맞는 옷

(10) ‘-에서’와 ‘-에게서’의 혼동

- [보기] 그 사람에서 문제가 된 글 → 그 사람에게서 문제가 된 글

(11) ‘-들’의 남용

- [보기] 우리들, 여러분들, 이리 오셔서 음식들을 많이들 드십시오.

(12) ‘-롭다’ ‘-스럽다’ 사용의 확대

종래 일부 명사 밑에 첨가되던 ‘-롭다’와 ‘-스럽다’가 광범위하게 쓰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보기] -롭다            정의롭다. 여유롭다.  
 -스럽다            존경스럽다. 검사스럽다. 선생스럽다.

## 5. 맺는말

사람이 같은 말을 하게 되면, 정이 서로 통하고 동질감을 갖게 되며, 동류 의식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한 나라의 언어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은 어떠한 다른 시책보다도 나라 안의 언어를 통일하여, 모든 국민이 통일된 규범어를 가지고 똑같은 언어생활을 영위해 주기를 바란다. 그 수단이 표준어 제정이고, 학교 문법 교육을 통한 일반 언중들의 언어 통일이다.

오늘날 일반 대중의 언어생활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말은 음운과 어휘·어법 면에서 규범이 무너지고 비규칙적인 면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일반 대중들의 언어생활이, 어떤 면으로 보면 혼란스럽고 규범어 규정과는 너무나도 어긋나는 면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언어생활을 하게 된 원인으로는, 우선 1945년 이후,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한 데서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50년 이후 우리 겨레는 역사상 가장 흑심한 시련을 겪으면서, 남북으로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으며, 농촌 중심 사회로부터 최첨단 현대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 이하로 감소하고, 각 지역 출신들이 서울 등 큰 도시에서 혼거하게 되어 각 지역어도 뒤섞여 쓰이게 되었다. 교육의 보급과 사회적인 변동에 따라 전 국민이 완전히 평등하게 되어 경어법 등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말은 언제나 대중의 관용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말은 관용을 바탕으로 해서 변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규범어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분명한 오용은 관용과 구별해야 할 것이다. 대중의 관용을 따른다고 몇십년 시기를 기한으로 하여 규범어를 자꾸 바꾸어 간다면 국가적인 표준어, 즉 규범어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언어생활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위에서 예로 든 오용들은 교열자들이 교정하기 때문에 일반 출판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모두 일상 대화에서 나타나는 예들이다.

따라서 앞서 예를 든 언어생활처럼 혼란스러운 오용들은, 다음과 같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표준화법도 성립될 수 있다.

- (1) 중부지방어를 표준어로 규정할 때,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10개 단모음을 제대로 조음하여 말을 하고 있으므로, 이 10개 단모음을 모두가 지킬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 (2) 우리말에는 평음(예사소리) 격음(유기음, 거센소리), 경음(된소리)의 대립이 분명하여, 각각 의미를 분담하고 있으므로, “씨주, 따른 사람”과 같이 귀에 거슬리는 발음은 예사소리로 바로 잡아야 한다.
- (3) 까닭없이 ‘ㄹ’과 ‘으’를 삽입하여, “흐르는 물 → 흘르는 물, 비소서(빌다) → 빌으소서, 놀니다(놀다) → 놀읍니다, 하려고 → 할려고, 가려고 → 갈려고, 먹으려고 → 먹을려고”라고 한다든지, “좋다고 말했다 → 좋더라고 말했다”와 같은 오용도 바로잡아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규범어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4) 아무리 언문일치를 강조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형식의 공식 행사에서는 정중한 격식체의 존대말로 해야만 격에 맞는다. 이를 해야리지 못하고, ‘맞아요’, ‘고맙구요’, ‘좋더라구요’ 등을 연발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도 정확한 경어법을 확실히 교육받아야 할 것이다.
- (5) 말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휘는 가장 변하기 쉽고, 시대에 따라서 그 쓰임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음운과 어법은 말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흔들려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두 요소는 몇 백년에 걸쳐서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기본틀은

지켜야 될 것이다. 또 언어생활에서 어떠한 어휘를 골라 써야만,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는 표현인가 하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이를 닦고’와 ‘이빨을 닦고’는 분명히 다르고, ‘짱’, ‘사고 치다’와 같은 속어나 ‘웃기고 있네’와 같은 유행어도 점잖은 표현은 아니다.

현대 중국이 이룩한 위업의 하나는, 전국 공통어의 보급일 것이다. 북경어를 바탕으로 해서 제정된 전국 공통어를, 현중국에서는 ‘普通話’라 하고, 중화민국에서는 ‘國語’라고 하는데, 이 전국 공통어를 가지고, 동북 吉林省 長春 사람과 서남 四川省 重慶사람(행정상으로는 重慶直轄市), 그리고 동남 臺灣省 臺北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자유로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 30년 전만 해도 중국 중앙 정부의 관리가 지방으로 시찰을 가면, 그 지역에서 전국 공통어를 아는 사람이 통역을 해야만 각 지역 방언 밖에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실지로 나도 33년 전에 臺北市內에서, 閩南語(민남어: 福建省과 臺灣省 일대의 방언) 밖에 모르는 할아버지가, 소학교에서 ‘國語’를 배운 손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饅頭를 팔고 있는 광경을 본 일이 있었다. 그런데도 근자에는 중국 최동북방인 黑龍江省 거주민과 최서남방인 雲南省 거주민이 아무런 통역이 없이도 서로 자유로이 대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아홉 개 방언권으로 나뉘는 중국 각 지역의 방언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각 지역 주민끼리는 그 지역의 공통어인 방언을 아직도 열심히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지 사람들과의 대화나 문장어(정부 공문, 학술논문 등)에서는 전국 공통어를 자유로이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이 그 동안 수십 년 간에 걸쳐서 꾸준히 통일된 교재와 문자로 전국 공통어의 교육과 보급에 힘을 기울여 온 결과 외국어 이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각 방언 사용자들이, 언어의 통일을 이룩하고 하나의 공통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언어가 바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문화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일반 대중이 자유분방하게 사용하는 언어를 어떤 규범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세계의 수천 개 언어 가운데서 사용 인구가 십삼 위라는 7천만의 한국어는, 지역 공통어인 사투리나 은어와 속어와는 다른, 품격 있고 높은 문화 수준이 반영된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다.